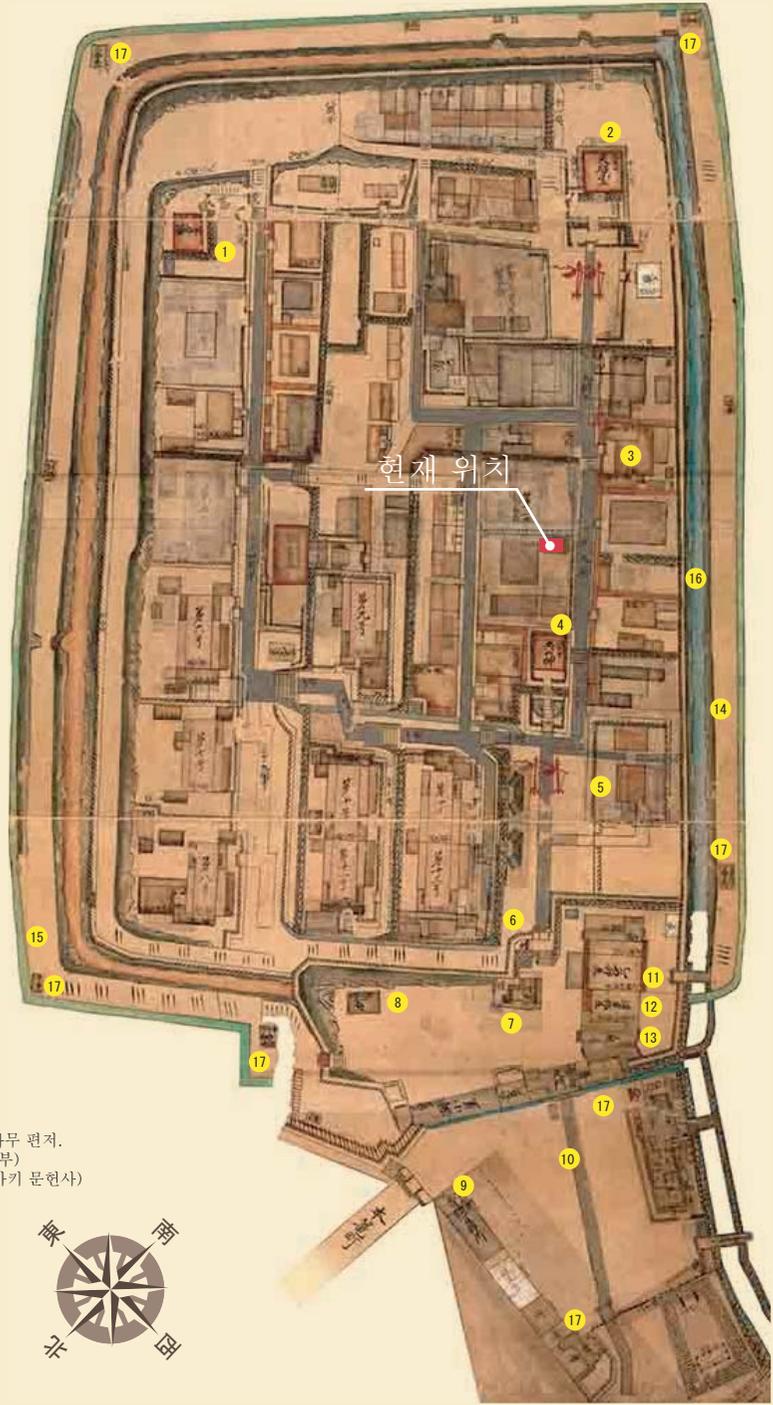


당인주거지 개요

‘당인주거지’는 중국인들의 거주지로, 179년 (1689~1868)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6,800평(후에 약 9,400평으로 확장)이었으며, 폭은 약 140m로, 길이는 250m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주변은 담장에 둘러싸여 테지마(出島)와 마찬가지로 거주자는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출입도 자유롭게 않아 이곳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통역사와 기생 등 한정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기독교 전과 및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인과의 접촉에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이몬’에 들어서면, 오토나(乙名:주거지를 감시하는 관리)와 통역사의 대기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는 허가를 받은 나가사키 상인들이 야채, 생선,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광장을 지나 ‘니노몬’ 너머는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나가사키의 관리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중국인은 ‘혼베야(本部屋)’ 건물에 살았으며, 배의 단위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은 선주와 상급 선원들이, 1층에는 하급 선원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의 건물은 일본인들이 지은 일본식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784년에 생긴 화재로 소실되어, 새 건물을 짓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직접 중국식으로 만든 ‘지분다테(自分立)’라 불리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붉은 격자문과 병풍 등으로 장식된 중국풍의 마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시설로 토신당(土神堂)과 관음당(觀音堂), 천후당(天后堂)이 있었으며,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시텐(市店)’이라 불리는 상점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성기에는 107채의 상점이 있었으며, 술과 차, 과자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나가사키 당관 그림집성-근세 중일 교섭사료집 6-」, 오바오사무 편저.
 * 간사이 대학 동서학술연구소 자료집 발간 9-6(간사이 대학 출판부)
 * 『이시자키유신 필 당관관 그림집』, 하라다 히로시 해설, (나가사키 문헌사)
 * 『신 나가사키사』 제2권 근세 편, (나가사키시)



현재 위치

① 관음당(觀音堂)

관음당은 1737년에 푸젠(福建) 출신의 당선주(唐船主)에 의해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데지마에 없었던 종교적 시설이 당인주거지에 있었던 이유는 격리된 주민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못한 장기체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화를 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관음당은 이후 몇 번의 보수를 거쳐 1917년에 개축되었습니다. 입구의 아치형 석문은 당인주거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② 천후당(天后堂)

천후당은 1736년에 중국 난징(南京) 사람들이 항해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하여, 이곳에 천후성모(天后聖母)를 모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790년에 수리 및 복원되었으며, 지금의 건물은 1906년에 전국에 있는 건교들의 기부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은 관제(關帝)도 함께 모시고 있어 다른 이름으로 관제당(關帝堂)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③ 대표의 방(總代部屋)

대표의 방(소다이베야)은 무역단의 대표자인 당선주(唐船主)가 있었던 방입니다.

④ 토신당(土神堂)

토신당은 중국인들의 요점으로 1691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토지신의 생일인 음력 2월 2일에는 무대를 설치하여, 중국 악기연주 등의 무대가 꾸며졌고, 무대를 보기 위해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도 왔었다고 합니다. 토신당은 1784년에 큰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되었으며 화교에 의해 보수 및 개축, 보존되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1950년에 해체되며 석전만 남겨졌게 되었지만, 1977년 나가사키시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⑤ 영혼당(靈魂堂: 유령당(幽靈堂)이라고도 함)

중국인이 객사(客死)한 경우에는 나가사키 삼복사(三福寺)인 고푸쿠지(興福寺) 절 또는, 후쿠사이지(福濟寺) 절, 소후쿠지(崇福寺) 절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나 선장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배를 통해 중국에 송환하였습니다. 본국에 송환하기까지는 이곳 영혼당에 안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인주거지 내에서 사망한 중국인의 위패도 영혼당에 모셔졌습니다.

⑥ 니노몬(二ノ門)

다이몬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 니노몬 너머에는 중국인들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관리들조차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니노몬을 지나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일본인은 기생뿐이었습니다.

⑦ 니노몬 경비초소(二ノ門番所)

당인주거지에는 이곳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唐人番)가 있었습니다. 경비는 다이몬과 니노몬에 배치되어 문감의 검사와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직책은 세습제(世襲制)였으며, 집안 대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 이외에도 중국인과 당인주거지를 드나드는 일본 상인들의 몸수색을 담당하는 경비(探番)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니노몬 경비초소에만 근무했지만, 1717년 이후부터 다이몬과 니노몬에 4명씩 배치되었습니다.

⑧ 감옥

다이몬과 니노몬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24평 남짓한 크기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⑨ 아미고야(網小屋)

다이몬에 들어서서 바로 옆 동쪽 편을 보면 5m 91cm×23m 64cm 크기의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들의 집을 검사하는 장소였으며, 그물 등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⑩ 다이몬(大門)

당인주거지에는 항구와 맞닿은 북쪽에 59m 10cm×5m 91cm 크기의 정문(表門)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비(唐人番)와 드나드는 사람들을 수색하는 경비(探番) 등의 지역 관리들이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몬(大門)과 니노몬(二ノ門) 사이에는 약 600평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이몬의 남쪽에는 급지 사항을 쓴 팻말(御制札)이 세워져 있었고, 통역사와 오토나(乙名: 당인주거지를 감시하는 관리)가 사용하는 건물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몬 안쪽의 광장은 당인주거지의 오토나가 발행하는 문감을 가진 상인들이 시장 등을 열었기 때문에 매우 붐볐다고 합니다.

⑪ 오토나(乙名)의 방

오토나(乙名:당인주거지를 감시하는 관리)는 1689년에 당인주거지의 조성과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당인주거지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를 비롯하여 사업의 상담자로서 중국인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오토나의 역할이었습니다.

⑫ 통역사(唐通事)의 방

중국어를 통역하는 통역사를 통역사(唐通事)라고 불렀습니다. 통역사는 통역뿐만 아니라 무역 업무와 당인주거지의 중국인들을 보살피는 일 등 활동 영역이 매우 넓어, 다양한 분야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⑬ 토담 ⑭ 대울다리 ⑮,⑯ 해자(壕字)

당인주거지는 밀무역을 방지하고 기독교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의 외부 출입은 엄격하게 감시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는 현재의 간나이마치(館内町) 전체 크기와 같은 약 9,400평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당인주거지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주위를 토담(練堀)으로 에워쌌으며, 바깥쪽은 물이 흐르는 해자(水堀)와 물을 흐르지 않은 해자(空堀) 등 위치와 역할에 맞추어 두 종류의 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대울다리(竹垣)로 주위를 에워싸 삼중으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⑰ 경비초소(番所)

당인주거지의 경비는 출입을 허용하는 문감 감사를 비롯하여 사람의 출입을 감시하고 이곳을 경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인주거지 개요

